

아이에겐 부모가 가장 좋은 선생님

## 제대로 가르치는 유아교육



정 미 라 | 강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부모들의 열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에겐 부모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 스스로 깨닫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좋은 모습의 부모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 유아기, 중요한 만큼 제대로 교육해야

최근 우리사회에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부모들의 열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부모들은 유아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아이들의 뇌세포는 생후 2년 이전에 급속히 발달한다든지, 아이들은 스폰지와 같아서 주변에서 보이는 자극을 모두 흡수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부모들은 아이에게 무엇이든 많은 것을 보고 듣게 해주면 더 훌륭하고 똑똑하게 자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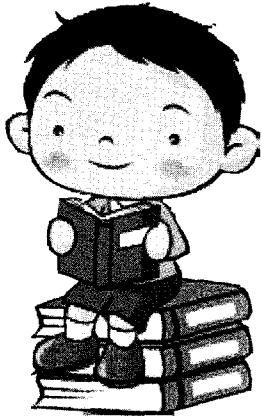
그러나 스폰지도 무조건 모든 것을 무한정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아이들도 각 발달단계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며, 발달에 부적합한 자극을 지나치게 주는 것은 오히려 발달에 해를 끼치게 된다.

### 아이 스스로 흥미롭게 배우도록

상업적 유아산업의 발달은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아직 우리말로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한글 읽기, 쓰기나 영어를 가르치는 등 지나친 조기·특기교육을 부추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결과 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고, 부모들은 일찍부터 지나친 사교육비의 부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노는 방법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신종 '놀이 과외' 까지 만들고 있다. 그러나 놀이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놀이가 아니라, 또 다른 학습일 뿐이다.

자율적으로 배우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생활태도보다는 의존적이고 타율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기 쉽다. 남보다 먼저 배워 학교에 가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다 배우고 온 것을 학교에서 배울



때 흥미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습에 흥미를 잃은 아이에게 스스로 학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어떤 아이의 소망은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다. 어른이 되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어른들은 공부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만 그 지겨운 공부를 강요한다고 생각하여 지겨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내 식성에 맞지 않고,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오히려 먹고 난 후 탈이 날 수도 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똑같은 원리가 아닐까?

무엇보다 중요한 학습 동기는 학습자 자신의 흥미이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 놀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사귀는 기술이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을 배우고, 어떤 일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운다.

또한,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사회적 규칙에 따르는 것도 배우고, 어른들이 하는 사회

적 역할도 실습해본다. 내 아이를 유능하게 키우고 싶다면 우선 아이를 충분히 놀게 하자. 컴퓨터, 텔레비전이 아니라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게 하자.

엄마와 아빠와 함께 노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가까운 공원에서 공놀이도 하고 자전거도 타면서, 약해져가는 아이들의 신체 운동 능력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 아이에게 부모가 가장 좋은 선생님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닮으려고 노력한다.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좋아하므로, 부모의 모든 행동을 보고 배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아이들은 부모의 좋은 행동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까지 모두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사실이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능력이나 태도가 있다면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갈 때도 장소나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의논하고 조사하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은 항상 계획하고 준비하는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매일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아이들은 항상 책임기를 좋아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될 것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선생님은 부모이며,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